

Newsletter

July 2012

Vol.17



Canada Wood
캐나다우드

01 Korea Director's Memo

대한민국의 목조건축 시장 규모는 2008년 처음으로 허가수 1만호 이상을 기록한 이래, 2011년에는 허가수 뿐만 아니라 착공수도 1만호 이상을 기록하는 시장으로 커져가고 있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설립된 해인 2006년의 통계와 비교해 보면.....more

02 국내 목조건축 사례

강화양도주택

지난 2011년 4월경 건축주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건축주는 건축가인 친구에게 우리를 추천받았다고 하면서 설계 및 시공을 의뢰하고자 하였다. 나는 긴 시간을 할애하여 건축설계의 중요성을 강조.....more

03 해외 목조건축 사례

CLT(Cross-Laminated Timber) 주택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품질이 좋은 목재를 건축물에 혁신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초기 원주민이 거주했던 롱하우스에서부터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more

04 QS Tip

유리섬유 단열재 설치 시 주의사항 #2

스터드 또는 장선, 서까래의 배치가 406mm 또는 610mm와 같은 표준 간격에서 벗어나 유리섬유 단열재의 재단이 필요한 경우, 스투드 또는 장선 서까래 사이의 공간보다 대략 25mm 정도 넓고 길게 재단.....more

05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4월~6월 활동사항

4월 14일 우드유니버시티 WBI(목조공동주택 전문가 과정)-13기 개강

5월 14일 경골목구조 벽체 3종 차음구조 인정 연장

5월 17일 캐나다우드 - 비에이치케이 MOU 체결

5월 19일 캐나다우드 - 우드유니버시티 기술세미나 개최

5월 23일~24일 캐나다산림투자혁신기관(FII) 필리파 샌더슨 이사 방한

5월 31일 계명대학교 - 캐나다우드 MOU 체결

6월 5일 계명대학교 건축학대학 특강

6월 18~22일 경희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06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7월~9월 활동계획

7월 2일~6일 계명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7월 2일~14일 2012 목조건축 한마당

7월 10일~18일 캐나다우드 디벨로퍼 & 미디어 미션 개최

7월 12일 캐나다우드 - 한국목조건축협회 QS 워크샵 개최

9월 10일~16일 캐나다우드 - 부산대학교 & 부경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9월 13일~16일 2012 부산경향하우징 페어 참가

9월 14일 목조건축 표준상세 워크샵 개최

9월 17일~21일 캐나다우드 - 대구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전시회 일정]

8/30(목)~9/2(일) 제30회 MBC 건축 박람회 | KINTEX

8/30(목)~9/2(일) 2012 코리아하우징 페어 | COEX

9/13(목)~9/16(일) 제22회 2012 부산 경향하우징페어 | BEXCO

Korea Director's Memo

정태욱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대표



대한민국의 목조건축 시장 규모는 2008년 처음으로 허가수 1만호 이상을 기록한 이래, 2011년에는 허가수 뿐만 아니라 착공수도 1만호 이상을 기록하는 시장으로 커져가고 있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설립된 해인 2006년의 통계와 비교해 보면, 허가수로는 2006년 5,654호에서 2011년 11,382호로 101%가 성장하였고, 착공수로는 4,203호에서 10,159호로 무려 142%가 성장하였다.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에 기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목조건축의 성장세는 2012년에도 이어져 가고 있다. 2012년 4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2011년 같은 기간의 허가수와 착공수 보다 각각 14.8%와 24.5%의 성장을 하고 있다.

국내 목조건축 시장의 성장은 단순하게 단독주택의 성장에만 기인하지 않고, 목조로 지어지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괄목한 성장에도 그 원인이 있다. 어느 젊은 건축가가 소위 "땅콩집"이란 이름으로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Duplex주택(2가구 주택)을 소개하면서, 다가구, 다세대 시장에 목조건축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공동주택에 목조건축을 적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목조로 된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에 대한 기술 개발과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능 입증에 필요하다. 공동주택에 대한 목조건축의 열기도 이러한 기술 및 기준 개발이 국내에도 어느 정도 되어있어 실현 가능한 것이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목조건축이 다층-다세대 공동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건축법규와 기준의 개발은 물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의 인정서 취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5월에는 (사)한국목조건축협회, 보랄석고보드와 함께 협력하여 공동주택의 세대 경계벽용으로 2011년에 1시간 내화구조 인정을 득한 내력벽체 3종의 차음구조 인정서를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직접 시험을 통해 취득하여 2012년 5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조건축이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내화구조 시험 모습 (건설기술연구원)



내화구조 시험 모습 (건설기술연구원)



차음구조 시험 모습 (건설기술연구원)



차음구조 시험 모습 (건설기술연구원)

국내 목조건축 사례 〈강화양도주택〉

김갑봉 스투가목조건축연구소 대표

건축개요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480-1
 대지면적 : 875.0m²
 건축면적 : 120.27m²
 연 면 적 : 184.46m²
 건물규모 : 지상2층
 주요용도 : 단독주택
 구 조 : 경골목구조
 주요외장재 : 채널사이딩(적삼목)

건축설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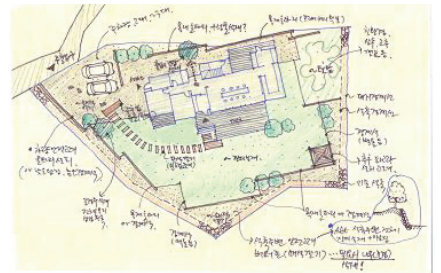
지난 2011년 4월경 건축주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건축주는 건축가인 친구에게 우리를 추천 받았다고 하면서 설계 및 시공을 의뢰하고자 하였다. 나는 긴 시간을 할애하여 건축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결국 설계는 우리를 추천해준 건축가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얼마 후 건축주는 건축가의 기본계획설계를 스케치 상태로 가지고 다시 방문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건축도면을 입력하고, 수차례의 미팅을 통하여 건축설계를 건축주의 몸과 마음에 맞춰갔다. 점차 건축주의 머릿속에는 집의 부분 부분까지 그려지게 되었다. 마침내 9월에 착공하게 되었고,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서도 미팅을 거듭하여 설계는 보완이 되었다.

기초공사

“사상누각”, “반석위의 집”은 모두 건물기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이다. 건축부지는 벼농사를 짓던 논을 성토한 땅으로 아직도 대지주변은 논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습지상태였다. 이런 상태의 부지에 일반적인 기초공사를 했다가는 건축 후 부동침하와 기초하부에 있을 논흙의 장기침하가 우려되었다. 결국 기초보강을 위해 기초하부에 제자리콘크리트말뚝(CIP)을 시공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5-Star품질인증

목구조의 기분을 지키기 위한 5-Star품질인증은 100년 주택을 위한 시작이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목조기술을 지원하고 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주관하는 5-Star품질인증을 신청하여 목구조 설계 및 목구조 표준디테일의 준수, 외벽과 지붕의 외피방습관리, 꼼꼼한 단열시공 상태를 점검받아 목구조공법에서 요구되는 기본에 충실한 집이 되도록 하였다. 먼저 한국목조건축협회에 품질인증 신청서와 함께 기본도면과 구조도를 제출하여 목구조 설계가 적절한 지를 검토 받았다. 1차 현장실사에서 목구조설계도면에 맞도록 목구조공사가 적절한지와 목구조 표준디테일을 준수하였는지를 점검받았다. 또한 2차 현장실사에서는 건물 외피의 방습디테일과 단열재 시공 상태를 점검받았으며, 두 차례의 현장실사에서 보완사항으로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하여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품질인증을 완료할 수 있었다.



건축가의 기본계획설계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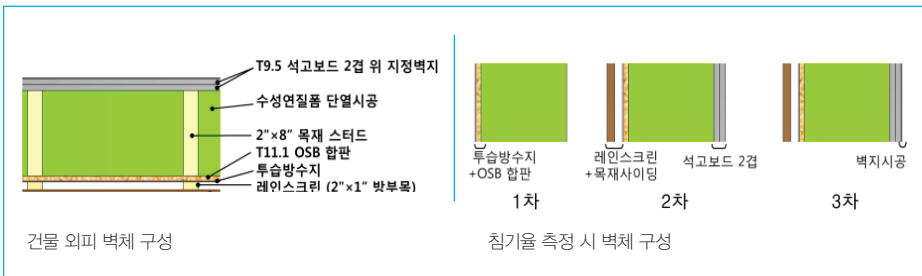
기초보강을 위한 CIP공사



5-Star 품질인증

고단열주택

점차 에너지자원이 고갈되어감에 따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이 가파르게 높아져만 가는 요즘에 높은 성능의 단열은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패시브하우스, 넷제로에너지하우스, 슈퍼하우스 등 고단열 주택이 국내에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다. 물론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마음만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건축주는 앞에서 나열한 정도의 고단열주택은 아니지만 최소의 건축비용으로 냉난방 유지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 왔다. 그래서 투자비대비 최대효과를 위해서 외벽의 두께를 2x6에서 2x8으로 키우고, 단열재를 유리섬유단열재에서 수성연질폼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외벽의 단열재 두께를 키워 단열성능을 높이는 한편, 단열재를 수성연질폼을 적용함으로써 기밀성을 확보하였다. 기밀성이 떨어져 겨울철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만큼 에너지가 손실되므로 기밀성은 단열의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이다.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산림과학원의 도움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는 외벽이 점차 마감되어가는 순서에 따라 세 차례 실시하였다. 1차는 수성연질폼 시공 후, 2차는 석고보드 시공 후, 3차는 벽지시공 등 건축물을 완성한 후로 나누어 각각의 단면구성에 따른 기밀성을 점검한 결과 매우 우수한 기밀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준공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도 기밀성 테스트를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밀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성연질폼 단열재 시공



기밀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우도어테스트

		1차	2차	3차
ACH50 (1/h)	감압	1.9	1.5	1.0
	가압	2.5	1.5	1.1
	평균	2.2	1.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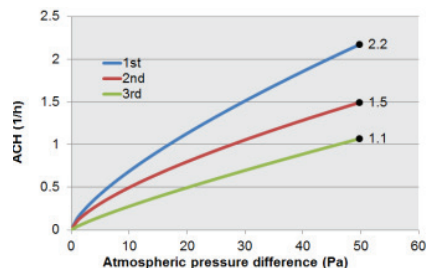
표 침기율(ACH50)

살아가기 1- 기계장치에 의한 환기

기밀성테스트에 의한 환기횟수가 1.5회/h 이하이면 폐열회수환기장치에 의한 기계적 환기가 권장되는 수치이다. 본 건물은 환기횟수가 1.1회/h이므로 기계적환기가 요구되는 수준으로 기밀성이 높았다. 하지만 건축주가 택한 것은 창문 등을 통한 자연환기로 기계적 환기장치를 대신하는 것으로 했고, 지난겨울과 현재까지도 살아가면서 높은 기밀성에서 올 수 있는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만족스럽게 생활한다고 한다.

살아가기 2- 지열보일러의 검토

난방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일러실을 만들고 지열보일러를 추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예비관로를 배려하였다. 하지만 지난겨울을 살아보면서 지열보일러의 설치기간 유보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단열두께를 높이고, 기밀성을 확보한 결과 지열보일러 설치를 위한 투자비 대비 기름보일러의 연료비가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얻은 결과이다.



침기율 곡선

해외 목조건축 사례 CLT (Cross – Laminated Timber) 주택

최재철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이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품질이 좋은 목재를 건축물에 혁신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초기 원주민이 거주했던 롱하우스(Longhouse: 원통형 목구조 주거지)에서부터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 이르기 까지 목조건축은 구조적으로 접근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오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건축 프로젝트에서 목재가 사용됨으로써 최근 들어 목재 사용이 번성하고 있다. 현재는 유럽에서 개발된 CLT (Cross-Laminated Timber)로 불리는 또 다른 공학목재제품은 실현 가능한 건축재료 옵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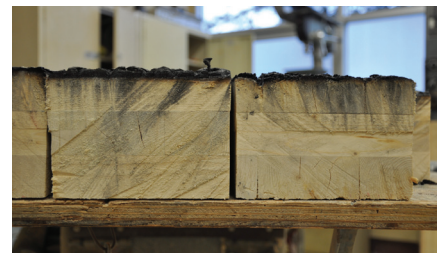
CLT 패널은 자체적으로 내력 강도를 가지고 있고 수직부재(벽)나 수평부재(바닥 및 지붕)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이다. CLT로 만들어진 벽, 바닥 및 지붕 구조는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현장 건축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CLT는 이론적으로 10층 높이 건물의 구조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고, 추가적인 구조계산을 통해 10층 이상의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어 콘크리트나 스틸의 대체 재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주요 건축재료로서 CLT가 사용된 최초의 건축 프로젝트 다울링(Dowling)주택은 연면적 436㎡, 3층 규모의 주택이다. CLT 공법을 적용한 다울링 주택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적용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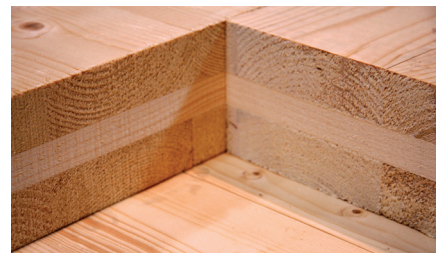
캐나다 밴쿠버 소재 DGBK 건축사사무소의 건축가 그렉 다울링(Greg Dowling)은 밴쿠버시 서쪽에 자신의 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가, 시공업자 그리고 건축주의 1인 3역을 맡았다. 다울링씨는 자신의 집이 가느다랗게 그리고 수평면이 서로 맞물리게 하여 불규칙한 경사지에서도 우아하게 돌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었다. 3층으로 된 주택은 3가지 주요 건축재료 : 콘크리트, 스틸, CLT를 포함하고 있다. CLT 패널은 벽, 바닥 및 지붕구조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온전한 이 특별한 CLT 바닥 및 지붕 시스템은 장스팬을 가능하게 하여 기둥 없는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울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2층 거실에서 뻗어 나온 캔틸리버 발코니 공간이다. 이 삼각형의 발코니는 CLT 패널로 제작되었다. 이 발코니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었을 경우 두께나 무게를 더해야 했을 뿐 더러 추가적으로 지지를 해야 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다울링 주택의 미적인 요소가 감소했을 것이다.

CLT 제작의 정확성으로 인해 패널은 밀리미터 단위로 제단 될 수 있었다. 다울링은 “이 주택은 단 6일만에 기본적인 CLT 골조작업을 마쳤는데, 반면 철근콘크리트조로 이 주택을 완성하려면 몇 개월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하며 CLT 공법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등과 콘센트는 공장에서 CLT 패널에 프리컷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1시간 15분 내화 테스트 후 CLT 패널



CLT 패널 단면



Dowling주택 전면



Dowling주택 배면



주인침실 내부

추가적으로, 목재 락은 전선작업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었고 천장과 벽 표면을 커버하기 위해 석고보드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CLT가 영구적으로 노출되는 곳에는 외관등급이 높은 목재로 만들어진 CLT를 사용하게 된다. CLT 패널의 고정은 못 대신 패널의 두께, 크기에 따라 제작된 스크류를 사용한다.

CLT는 자체적으로 내화능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표면이 서서히 숯(Char)으로 변하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패널 중심부가 화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도와준다.

지진대에서는 구조시스템이 적절한 내진성을 갖도록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건축 중에 사용되는 고정철물과 연결 디테일들은 CLT 구조가 내진성을 갖도록 해준다. 일본에서 진행했던 7층 CLT 구조물에 대한 지진대 테스트의 결과 중대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CLT의 우수한 내진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Did you Know

세계에서 제일 높은 목조건축물 신축 경쟁



(사진 출처 www.construction.am)

- **9층:** 현재 세계 최고 높이의 목조건축물은 런던에 소재한 9층 공동주택으로 2009년 준공되었다.
- **10층:** 호주 멜버른시에서는 세계 최고 높이 CLT(Cross-Laminated Timber)로 된 10층 주거건물이 201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되고 있다.



(사진 출처: www.themalaysianinsider.com)

- **14층:** 노르웨이의 베르겐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건축자재인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입주를 목표로 14층의 목조 공동주택 신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캔틸리버 발코니



캔틸리버 외부 천장 패널



외부노출 바닥패널



콘센트삽입용 프리컷

QS (Quality Support) Tip

<유리섬유 단열재 설치 시 주의 사항 #2>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QS팀

Tip #2: 벽과 지붕에 유리 섬유 단열재를 설치할 때 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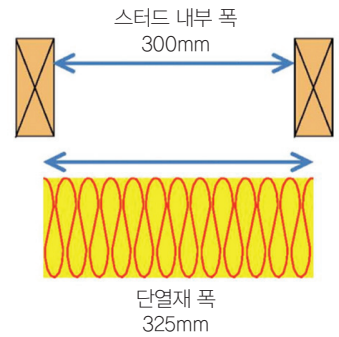
잘못된 시공 사례

<접히고 눌린 유리 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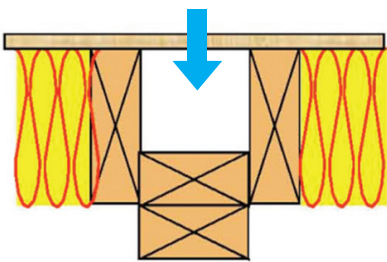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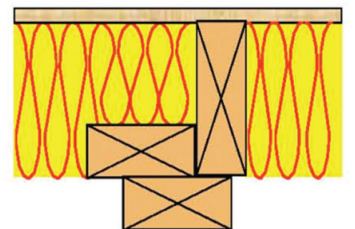
스터드 또는 장선, 서까래의 배치가 406mm 또는 610mm와 같은 표준 간격에서 벗어나 유리섬유 단열재의 재단이 필요한 경우, 스투드 또는 장선 서까래 사이의 공간보다 대략 25mm 정도 넓고 길게 재단하여, 단열재가 접히거나 골조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외벽과 내벽 교차부 단열재 미설치>



왼쪽 화살표 부분과 같이 외벽과 내벽이 교차하는 결합부위에는 덮개를 덮기 전에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흔히 이 부분에 단열재의 설치가 안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설치 한 경우에도 외벽 마감이 완성되기 전에 비를 맞을 수 있게 되어 단열재가 건조 상태를 유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벽과 내벽 교차부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디테일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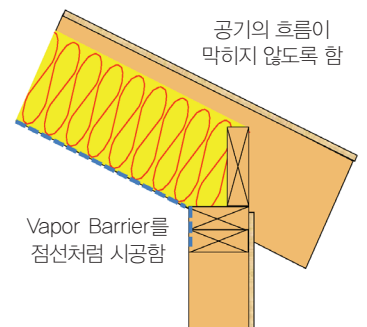


외벽 마감 공사가 끝난 후 건물 내부에서 단열재 작업을 할 수 있고, 냉교 현상도 최소화 하는 디테일

<서까래와 벽체의 교차부 외기에 노출>



경사 노출 천장의 경우 오른쪽 디테일과 같이 단열재가 윗갈도리를 반드시 덮도록 시공하여, 단열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원활한 공기의 유입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붕 덮개와 단열재 사이에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서까래 부재의 크기를 선정하거나, 서까래용 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4월~6월 활동사항

4월 14일

우드유니버시티 WBI (목조공동주택 전문가 과정) - 13기 개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사)한국목조 건축협회가 후원하는 우드유니버시티의 'WBI-목조공동주택 설계, 시공, 감리 전문가 과정' 13기가 4월 14일 개강하였다. WBI 과정은 9월 8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목조건축관련 법규 및 기준에 준하여 경골목구조를 포함한 목조건축의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우드유니버시티의 교육 이수자는 캐나다우드가 주최하는 캐나다 다중 목조건축 기술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교육비를 제공받게 된다.



WBI(목조공동주택 전문가과정) 교재

5월 14일

경골목구조 벽체 3중 차음구조 인정 연장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보랄 석고보드와 협력하여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세대 경계벽용 경골목구조 벽체 3중의 차음구조 인정기간의 연장을 위해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서 실시된 차음성능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1시간 내화구조 인정을 득한 벽체 3중의 차음구조 인정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어 2017년 5월 14일까지 유효하게 되었다.



경골목구조 벽체 3중 차음구조인정서

5월 17일

캐나다우드 - 비에이치케이 MOU 체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캐나다천연자원부 (NRCan) Super-E Office는 5월 17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슈퍼-E 하우스 기술지원협약'을 위한 MOU를 (주)비에이치케이와 체결하였다. 슈퍼-E 하우스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마련한 저에너지 고효율주택 솔루션이다. 캐나다천연자원부 Super-E Office와 캐나다우드가 후원하고, (주)비에이치케이가 주최하는 이날 협약식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크리스티 클락 수상, 캐나다천연자원부 Super-E Office 대표 제프 컬프, 캐나다산림투자혁신기관(FII) 대표 켄 베이커, 마이클 대나허 주한캐나다 공사, 캐나다우드그룹 회장 폴 뉴먼 및 캐나다 그린빌딩 사절단 등 캐나다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슈퍼 E 하우스 기술지원 협약식

5월 19일

캐나다우드 - 우드유니버시티 기술세미나 개최

캐나다우드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하나인 우드유니버시티의 동문들이 양평 KOBACO연수원에서 기술세미나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술세미나는 2011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수상을 한동문의 목조건축 작품 소개와 동문들이 직접 설계, 시공한 목조건축물 소개로 진행되었다. 또한 세미나뿐만 아니라 점심식사 후 체육활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5월 23일 ~ 24일

캐나다산림투자혁신기관(FII) 필리파 샌더슨 이사 방한

캐나다산림투자혁신기관(FII) 필리파 샌더슨 이사는 BC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과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다양한활동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 이틀간의 짧은 방문 일정 동안 (사)한국목조건축협회, 목조주택 시공사를 방문하여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또한 캐나다우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 연계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인하공업전문 대학 건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Build Green with Wood'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사)한국목조건축협회 방문



필리파 샌더스 이사의 특강을 듣는 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학생들

5월 31일

계명대학교-캐나다우드 MOU 체결

캐나다우드와 계명대학교 건축학대학은 목조건축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명대학교에서 MOU를 체결하였다. 계명대학교는 캐나다우드와 MOU 체결을 계기로 6월 한 달간 건축학대학 학생들에게 캐나다산 S-P-F 구조재로 파빌리온 디자인을 공모하여 선정된 디자인을 7월 2일~6일까지 캠퍼스에 직접 제작, 설치할 예정이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는 기술 지원 및 교육 지원과 기술 자료 책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6월 5일

계명대학교 건축학대학 특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사)한국목조건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함께 대학연계교육의 일환으로 계명대학교 건축학대학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특강을 하였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최재철 이사는 '경골목구조 개요 및 특징'을, (사)한국목조건축협회 박찬규 회장은 '목재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하였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계명대학교 건축학대학과 공동으로 2012년 7월에 경골목구조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계명대 건축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진행

6월 18일~22일

경희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숍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경골목구조 워크숍을 마쳤다. 5월 1일부터 4주에 걸쳐 경골목조건축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이론교육을 실시했으며, 6월 18일부터 5일간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그린빌딩협의회(KGBC)에서 제시한 서울 사무실 내부의 일부 벽을 캐나다산 규격재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컨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맞게 디자인 안을 제출 했다. 학생들은 총 8작품을 제출하였으며, 최우수작 1점, 우수작 3점이 선정되었다. 한국그린빌딩협의회에서는 최우수작에 선정된

학생 2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그린빌딩 컨퍼런스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을 주고, 우수작 학생들에게는 LEED 자격 취득을 위한 무료 이론교육 제공을 약속했다. 경희대학교 건축학과는 이론과 실습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3학점을 제공하였다.



S-P-F 규격재를 도면에 맞춰 조립하는 경희대 학생들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사무실 디스플레이 벽체 조립



한국그린빌딩협의회에 설치된 벽체 앞에서 단체사진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7월~9월 활동계획

7월 2일~6일

계명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대구 계명대학교 건축학대학에서는 캐나다우드와 공동으로 5일간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에서 경골목구조에 대한 설계, 시공 실습 및 이론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40여 명의 학생들은 8월에 개관할 건축학대학 신축건물 주변 부지를 활용해 학생들이 실수 있는 실험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워크샵 기간 동안 직접 제작할 예정이다.

7월 2일~14일

2012 목조건축 한마당

충남대학교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목조건축의 보급 확대와 시공 인력 양성을 위한 '2012 목조건축 한마당'을 대전에서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주간 실습과 야간 이론교육을 통해 직접 50평 2층 목조주택을 짓게 되며, 완공된 건물은 대전의 장애인 봉사단체에 기증된다.

7월 10일~18일

캐나다우드 디벨로퍼 & 미디어 미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국내 언론 및 디벨로퍼를 대상으로 캐나다의 목재 산업과 캐나다 목조건축 사례를 경험하기 위한 시찰단을 모집하여 캐나다를 방문한다. 8일간 진행되는 이번 견학은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목재 제품의 생산, 그리고 다양한 목조건축 및 복합 건물, 특히 목조 단독 및 저층 공동주택 등의 견학을 통해 목조건축의 시장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목조건축의 홍보와 한국시장에서의 활발한 목조건축 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월 12일

캐나다우드 - 한국목조건축협회 QS 워크샵 개최

목조건축물의 시공 품질의 향상을 위해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3번째 QS 워크샵이 개최된다. 캐나다우드 중국사무소의 캐리 학비스트씨를 초청하여 현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골조 시공 디테일을 바로 잡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9월 10일~16일

캐나다우드 - 부산대학교 & 부경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캐나다우드와 공동으로 경골목구조 워크샵을 2012 부산하우징페어 기간 동안 BEXCO 옥외전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워크샵을 통해 경골목구조에 대한 설계, 시공실습 및 이론교육을 받게 된다. 워크샵에 참여할 학생들이 제작할 실습용 소형 목조 플레이하우스(Playhouse)는 완성 후 부산 지역 복지시설에 기증될 예정이다.

9월 13일~16일

2012 부산경향하우징페어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 벅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12 부산하우징페어에 참가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발행한 목조건축 기술서적을 무료 배포하고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홍보하며, 페어 기간 중에 일반인을 위한 세미나 및 부산, 경남 지역의 목조건축 관계자 초청 간담회도 진행 할 예정이다.

9월 14일

목조건축 표준상세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건축사협회 회원인 부산 지역 건축사와 전문인을 대상으로 캐나다우드에서 개발한 '목조건축 표준상세-경골목구조편' 책자를 소개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샵에 참가한 목조건축 전문인과 건축사에게는 목조건축 표준 상세 책자 및 캐나다우드 기술 책자 등을 배포하여 목조건축 설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9월 17일~21일

캐나다우드 - 대구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대구대학교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제4회 경골목구조 워크샵을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1주일간 공동 개최한다. 목조건축실습 과목의 일부로 개최되는 본 워크샵은 이론 교육과 소규모 목조건축물 제작 실습을 통해 건축자재로서의 목재와 목조건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공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전시회 일정]

8/30(목) ~ 9/2(일)
제30회 MBC 건축박람회 | KINTEX
8/30(목) ~ 9/2(일)
2012 코리아하우징페어 | COEX
9/13(목) ~ 9/16(일)
제22회 2012 부산경향하우징페어 | BEXCO



Canada Wood
캐나다우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3-7번지 203빌딩 3층
TEL : 02-3445-3834~5 FAX : 02-3445-3832
www.canadawood.or.kr